

“사랑의 연탄 나르기”

영북면 기수연합회 연탄 2만장 전달

영북면 기수연합회(회장 김재영)는 11월12일 오전7시부터 오후2시까지 운천1리 이송우씨택을 포함한 영북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59세대에 연탄 2만장(세대당 340장)과 자일리 배인수 씨가 협찬한 계란 140판(세대당 2판)을 직접 배달하는 행사를 벌였다.

13개 기수연합회원 150여명과 차량 25대가 투입된 이날 행사에서 김재영 회장은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연료비가 많이 들어 힘들게 지내시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후 회원들은 산정호수 등 산로, 동근 달 가든 주변 산책로, 문암리 공동묘지, 팔호 공동묘지의 쓰레기 및 오물을 말끔히 치우기도 했다.

이날 소요된 비용은 연탄구입비 500만원(직배조건 당매가 250원*2만장) 및 부대비용 30만원 등 총 53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회원들의 아침식사는 장원화관에서 협찬했다.

또한 기수연합회는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영북면 선수 30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체육복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1월1일 포천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11월12일 오전7시부터 오후2시까지 운천1리 이송우씨택을 포함한 영북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59세대에 연탄 2만장과 자일리 배인수 씨가 협찬한 계란 140판을 직접 배달하는 행사를 벌였다.

“어르신과 함께 노래해요”

기타동아리 영북노인대학 수료식 축하공연

영북노인대학(학장 박동규)은 11월14일 오후1시 80여명 학로 교육수료를 자축하는 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치원생의 동극, 기타동아리 연주, 노래자랑 등 순서로 이어졌는데 이중 기타동아리연주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다.

40~50대 주인으로 구성된 영북면 기타동아리회원들의 ‘사랑은 내내인가봐, 소양강처럼, 짝사랑(주현미),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동동타령, 옥영이, 칠갑산’ 등 기타연주가 40여분 간 이어져 학로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기타동아리의 한 관계자는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은 내 친부모와 같다는 마음이 들어 방문하는 자리가 편하고 실제로 은사님이나, 은사님의 어머니, 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르신들이 부르기 편한 곡으로 선정하기 위해 일주일상 고심하고 연습한 끝에 연주한 것으로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좋아

할 수 있는 갖거리 리듬 등을 준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연주를 감상한 한 학로는 “우리 노인들이 따라 부르기 편한 노래를 불러주어 모두가 박수를 치며 같이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칠갑산을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동규 노인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학사일정에 의해 제29차 교육과정으로 자축공연을 갖기로 한 날로서 원래는 연세 많은 분들의 교육을 축하받아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스스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타동아리 연주가 수준이 매우 높고 듣기 좋아서 내년에는 제대로 연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북노인대학은 11월14일 오후1시 80여명 학로 교육수료를 자축하는 공연을 가졌다.

자유 기고



이종훈 포천시외장 경기도문화재청장

현재 국가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법체계는 1982년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다. 문화재는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지정된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보존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인간이 지적인 활동에서 파생된 소산물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종교 등을 통해 표현된 산물들을 말한다. 문화재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희귀성, 시대성, 재료, 학술성, 예술성에 의하여 평가된다.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분류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사적, 명승지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외는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며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시군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1985. 11. 2일 향토유적보호조례를 만들어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는 그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유적으로 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선인들이 살고 간 삶의 흔적이자 정신활동의 내포된 유적이다. 문화재야말로 그 지역의 자존심과 역사성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산물이다. 우리가 문화재를 중히 여기는 것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특색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방범으로 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시도별로 양성하여 문화해설사, 안내, 해설요원으로 양성하여 문화재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 관광을 간다면 문화재 여행을 할 때 해설사가 없으면 안내관이나 간단한 설명문만 보면 궁금증은 물론 문화재의 이면(裏面)은 보지 못하는 우(愚)를 느끼게 된다.

필자가 포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포천의 역사와 문화재를 조리 있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포천을 군사적인 도시정도로 알았던 사람들이 대단한 문화와 자연의 도시로 깨닫고 놀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애양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자기가 설명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자유 기고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현우 주부명예기자

포천지역은 농어촌 복합도시로서 주로 농사업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서민층이 대다수 인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2007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대형할인점 삼성 홈플러스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준주거용지 18호에 건축면적 1,100평에 연면적 7,100평의 지하 2층 지상5층의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어 향후 그 여파는 포천 전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인양한 정책으로 인해 농 축산업 뿐 아니라 지역상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지고 있어 다산상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다실연) 단체의 반발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농 축산정책 재고해야

을 시작으로 농협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농축산 작목반과 특작물 작목반들과 협력해 그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농축산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의 농축산물의 판매가격과 삼성 홈플러스의 할인판매 가격차이는 실로 대단하여 영세한 조합원들은 농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배추 1통에 하나로마트에선 할인 가격이 900원인데 홈플러스에서는 280원이다. 또한 생닭 한 마리 3,000원짜리를 980원에 판매를 하고있고 그 차이는 2,000원이다. 또한 신고배 한 개 차이 500원, 단감 한 개 차이 400원, 생삼겹살 600g의 차이는 1,400원이다. 또한 공산품으로 화장지의 경우 50mx24롤은 하나로마트 8,300원, 홈플러스 3,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몇 천만원씩 하는 외제차 폭스 바겐을 경품으로 내 놓고 있으며 40인치 LCD TV와 대형 김치냉장고, 여행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놓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근 의정부에 있는 삼성홈플러스다. 이처럼 생산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 지역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 이 지역의 모든 농축산업은 폐농해야 할 것이고 영세한 상가는 모두 개점휴업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상태이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 경제정책의 실패론은 당연히 포천시의 탁상정책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코앞에 이익만을 생각하고 삼성 홈플러스를 포천시 지역에 유치한 것은 향후에 다가올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홈플러스의 유치로 인해 지자체의 지방세금 몇 푼을 벌어들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통업체 마진 등을 합해서 지역경제에 환원되는 그 금액은 홈플러스 매출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은 대형할인마트 삼성홈

러스가 농어촌 복합도시인 포천시 지역 에 입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굳이 입점해야 할 경우 지역 농축산업자와 상인들에게 그에 따른 상당액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포천시는 홈플러스가 입점을 한다면 송우리 시내 교통이 더욱 마비가 되지 않을까? 농축산·식품류 등의 유통도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포천시 전역에 대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경제 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란한 인심과 흥행하는 맛이 있어서 정겨움이 넘치는 재래시장의 관리 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이라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따라 재래 시장 시설개선사업을 펼쳐며 그동안 많은 개선자금을 활용하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인해 재래시장 본연의 향수 어린 풍토가 색 바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ssay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윤순옥 포천시외장인명회고문

민들레 흙씨가 바람에 날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노란색의 고운 꽃을 피워 벌나비 불러모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어 모체역할을 하니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그냥 그렇게 보아 넘기엔 인간에게 주는 말없는 자연 소리를 확인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능력 밖의 일이라도 욕심나는 자리면 수단방법을 불사하지 않던가? 욕심내어 사수한 자리에서 무슨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보다는 남들이 동경하는 자리인지 몰라도 자신도 모르게 권위사상에 젖어 힘없는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가?... 미물 집승인 님께라도 위엄에 처하면 절대 새끼 말을 앞질러 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덕을 지닌 날짐승이 아닌가.

최고의 학력을 쌓아 좋은 자리에 있

다가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져 수감되는 높은인 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 온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서 반성의 빛은 별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경성이 심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많은 날을 인내로 견디며 공부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목적의식에서 공부에 전념했지, 감성지수에 내면을 채워주는 인간공부는 부족한 현실인 것 같다.

이제라도 힘 없이 학구능력만 의지해서 고생하는 청소년들도 가끔은 여유를 주어 자연의 순리대로 인간미를 쌓았으면 좋지 않을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겨울이 더 추워지기 전에 혹시나 냉해져 있는 가슴들을 포근히 감싸주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이 감싸보았으면 나의 모습이 곧 겨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겨울에 비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교환해 이해 겨울은 모든 이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빌어본다.

자유 기고

아름다운 사람



박혜자 주부명예기자 포천시장

높고 맑은 가을 하늘 만끽이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정, 하이네 농장 고영숙 대표를 소개하고 싶다.

요즘을 같이 경제가 안 좋고 힘든 시기에 꽃샘추위와 함께 유자차가 거대한 알을 낳았다. 포천시문 주부명예기자단 기금미려 바자회를 통해 얻은 유자차 한 병은 양갈비 40대(32만원 상당)와 배추 100여 포기를 싣듯 기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고영숙 대표의 봉사하고픈 따뜻한 마음과 여리고도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면 윤종업 주부명예기자가 지원해준 쌀 80kg을 독거노인 불우이웃들에게 동감비 40대(32만원 상당)와 배추 100여 포기 싣듯 기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고영숙 대표의 봉사하고픈 따뜻한 마음과 여리고도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면 윤종업 주부명예기자가 지원해준 쌀 80kg을 독거노인 불우이웃들에게 동감비 40대(32만원 상당)와 배추 100여 포기 싣듯 기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고영숙 대표의 봉사하고픈 따뜻한 마음과 여리고도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는데 노력봉사는 식당운영문제라 시간관계상 어렵고 식사 봉사할 수 있으면 하구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정말 이런 것이 신바람이구나 감동이 밀려온다. 봉사하는 마음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걸 실감했다. 현실은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상대보다는 내가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겐 활력소이다.

쌀 80kg은 포천동 독거노인들께 나눠 드리고 양갈비 40대는 신북면 계류리에 있는 양로원 나드리 마을에 갖다 드리고 무궁해 배추 100포기는 흥부네 가족(박상은에게 주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언가 얻어지면 누구한테도 주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쌀 같은 기쁨+강 같은 평화+하늘같은 사랑이 나누어주듯 함께 병행한다.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작은 행복도 나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진짜에 빠져 버는 사람이 마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일화가 있다. 매사에 참여해보고 싶어 사랑하여 참된 삶을 엮어 장식해 보고 싶다.

자유 기고

신뢰(信賴)



이규임 안국영씨지역위원장

병(兵)과 식(食)과 신(信) 가운데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버릴 것은 ‘식’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지막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신’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병은 그렇다치고 왜 식까지 버려야 했을까?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신(信)은 실(實)과 통하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꿰뚫어보았던 것이다. ‘신’이란 ‘먹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신(信)은 믿음이다. 열매가 꼭 들어 차 있었으리라는 믿음이다. 먹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결실(結實)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실’이 말하는 것처럼 알곡이 꼭 들어차야 열매가 열린다. 알곡이 차지 않으면 쪽정이 된다. 쪽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알곡이 꼭 들어차야 열매가 되어야 한다. 알곡이 꼭 들어차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먹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믿음을 말하는 이유이고 믿음을 제일의 덕목(德目)으로 삼는 이유이다.

알곡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결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끌어올리려 영양분을 받아 가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햇빛이 모자라도 안 되고 물이 모자라도 안 되고 영양분이 모자라도 안 된다. 또한 땅 흘러버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밭 흘러버려 차곡차곡 열심히 쌓아올리려 알곡이 되는 것이고 게으름 피우며 빈둥거리면 쪽정이 되는 것이다. 쪽정이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스스로 물어 볼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때 믿는가? 학

자들은 말한다. “진실(眞實)을 말할 때 믿는다.” “일관성(一貫性)이 있을 때 믿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이다. 진실성(眞實性)이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일관성이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이다. 언론(言論)도 마찬가지이다. 신문(新聞)과 방송(放送)도 마찬가지이다. 그 매체(媒體)가 진실(truth)을 말하고 일관성(consistency)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론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그것은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이다.”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그 말에 일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때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고 불안(不安)이 짙게 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효신(集神)살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효신’이란 거짓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짓말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신뢰(信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속명의 골짜기를 벗어나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측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는 정후(徵候)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된다. 어제는 저렇고 오늘은 이렇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의논박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색안경을 쓰고 보아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있는 대로보고 있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勇氣)와 지혜(智慧)를 가져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고사를 되새겨 봐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알아듣기 비단다.